

국내 제약업계, 신약·기술수출 밀어주며 자회사 IPO 속도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 성장 가속
이문은시아 면역항암제로 재도전
동국생명과학 세계 이미징 기업 도약

국내 대표 제약 기업들의 자회사들이 파이프라인 구축, 신약 발매 등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하면서 기업공개(IPO)에도 잇따라 도전하고 있다.

15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자회사 이문은시아는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이문은시아는 앞서 지난 4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예비심사 청구 자격을 갖추는 등 코스닥 상장에 거듭 도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A, BBB등급을 획득했는데,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지 못해 상장 추진이 미뤄지기도 했다.

이문은시아는 지난 2016년 9월 유한양행과 미국 소렐로테라퓨틱스가 합작해 설립한 면역항암제 개발 전문기업이다. 이문은시아는 체내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와 대식세포를 표적하는 핵심 기술을 활용해 국내 최초 면역관문억제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문은시아는 모든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계열 내 최고 신약'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핵심 파이프라인으로는 IMC



동국생명과학 안성공장 전경.

/동국생명과학

-001, IMC-002, IMC-003 등을 구축했다.

특히 IMC-001은 PD-L1 항체로, 암세포 표면의 'PD-L1'이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PD-1'과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문은시아는 NK/T세포 림프종을 비롯해 희귀암 중심으로 IMC-001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 진행 중이다.

CD47 항체 치료제 후보물질인 IMC-002는 고형암 임상1a상에서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 이문은시아는 지난 6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4)'에서 해당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중국 3D메디슨과 총 4억7050만달러 규모의 'IMC-002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초기 임상단계에서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제37호 국산 신약 '자규보정'을 개발한 온코네티라퓨틱스도 최근 올해 안에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을 거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승인받았다는 행보다.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지난 2020년 5월 제일약품의 신약 전문 자회사로 설립됐다. 이후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37호 국산 신약 '자규보정'을 허가받았고, 후속 신약 후보물질로 파프-탄키라제 이중저해 표적항암제 '네수파립'을 개발하는 등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자규보정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이달 1일부터 국내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국내외 제약업계에서 새로운 블록버스터 후보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중국, 인도, 멕시코 등 해외 현지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자규보정이 기술수출로 진출한 국가는 총 21개국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온코네티라퓨틱스가 최종 코스닥에 상장되면 기술특례상장 기업 가운데 신약 허가에 이어 해당 신약 매출을 확보한 상태로 상장되는 첫 사례가 된다.

동국제약은 자회사 동국생명과학을 글로벌 종합 이미징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초석을 닦았다. 동국생명과학은 지난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위원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신규상장(IPO)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공동 주관사는 KB증권이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동국생명과학의 주요 제품인 엑스레이 조영제 '파미레이', MRI 조영제 '유니레이' 등은 국내 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25여 국가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 동국생명과학은 초음파, 이동형 CT, 유방촬영기 등 영상 진단 장비 등으로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실제로 동국생명과학은 올해 상반기 67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는 연간 매출액 1202억원, 영업이익 85억원을 기록했는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 36.9% 증가한 규모다.

동국제약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영상 진단 의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조영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정조준해, 동국생명과학의 기업 가치를 높여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광동과천타워' 조감도.

/광동제약

광동제약, 61주년 맞아 '과천타워'로 본사 이전

광동제약은 61번째 창립기념일에 맞춰 '광동과천타워'로 본사를 이전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기존 서초동과 구로동에 각각 소재했던 광동제약 본사와 R&D연구소가 과천 신사옥으로 통합됐다. 광동제약은 부서 간 업무 교류와 소통을 확대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광동과천타워는 경기 과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지상 15층, 지하 6층으로 조성된 연면적 7071평 규모의 스마트 오피스다.

출입문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로비는 1~3층을 연결한 구조로 개방감을 갖췄다. 1층부터 4층까지는 내외부 소통 공간으로 광동제약 역사관, 카페테리아, 캐주얼 라운지, 접견실 등이 설치돼 임직원뿐 아니라 방문객도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다. 5층부터는 업무 공간으로 본사 각 부서와 R&D연구소가 위치한다.

특히 광동제약은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구축함에 따라 자율좌석제,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 운영한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고혈압 등 6개 품목 개량·복합신약 개발

항고혈압 등 신약 임상 3상 진행 중
저용량 3제 복합제 HCP1803 개발

한미약품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근골격계 등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6개 품목의 개량·복합신약들이 임상 1~3상 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들을 끊임 없이 출시하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한미약품은 국내 최초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인 'HCP1803'을 개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발 중이다. 현재 국내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임상 종료 시점은 오는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한미약품은 앞서 지난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고혈압학회(ESH)에서는 HCP1803 기반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 해당 연구는 저용량의 3가지 항고혈압 성분을 병용한 요법이 고혈압 초기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미약품은 HCP1803을 통해 여러 병리학적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개량·복합신약 신제품을 계속 선보여왔다. 지난 2023년 9월 당뇨병 치료제 '실디파'에 이어 올해 2월 항혈전 치료제 '라스피린'을 출시했다. 이어 여러 용량과 다양한 조합으로 '패밀리 제품군'을 지속 확장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일찍이 항암 분야 바이오 신약 '롤론티스'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입증한 바 있다. 롤론티스는 '롤베돈'이란 브랜드명으로 미국 의약품 시장에 진출해 매 분기 200억원대 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자체 세포주 개발 플랫폼 공개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간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세포주(Cell Line) 개발 플랫폼 'HI-CHO CLD(Cell Line Development)'를 처음 공개했다.

셀트리온은 15일 열린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컨퍼런스'에서 '고성능 세포주 개발'을 주제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규 세포주 개발 플랫폼 'HI-CHO'가 가진 특징점과 해당 플랫폼의 향후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세포주는 세포의 지속적 증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세포 집합체'를 뜻하며, 치료제의 원료인 재조합 항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에 공개된 HI-CHO CLD는 새로운 CHO(Chinese Hamster Ovary) 숙주 세포주(Host Cell Line)와 자체 발현 벡터(Vector)로 구성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상웰라이프, 영유아 시장 경쟁력 강화

대상웰라이프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UCK파트너스와 개인창업주 2인으로부터 에프앤디넷의 지분 90%를 인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국내외 성장가능성이 큰 산모 및 영유아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상웰라이프가 인수한 에프앤디넷은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보유한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특히 국내 분만병원 채널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상웰라이프는 기존 자사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에 더해 에프앤디넷의 ▲병원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에디션'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더팜' 등을 확보했다. 또한 각 유통 채널을 아우르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빙그레 "헤이즐넛 쿠키로 바삭"

플레도르 '피스타치오앤초코' 출시

빙그레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플레도르의 신제품 '플레도르 피스타치오앤초코'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플레도르 피스타치오앤초코는 초콜릿과 피스타치오가 조화를 이루는 스틱마 제품으로 초콜릿과 헤이즐넛 쿠키가 어우러져 바삭한 식감과 달콤한 풍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진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플레도르 피스타치오앤초코는 편의점, 일반 소매점 등 전국 유통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가격은 편의점 기준 3000원이다.

한편 빙그레의 대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플레도르는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쿠키 앤 크림'·'쿠키 앤 초코'·'베리 믹스' 등 색다른 스틱마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